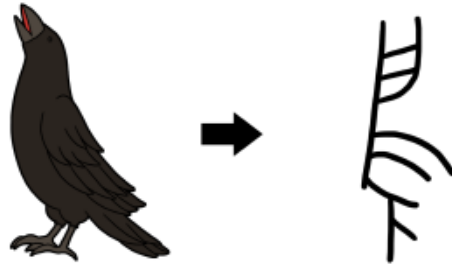


3(2)
-
301

상형문자①



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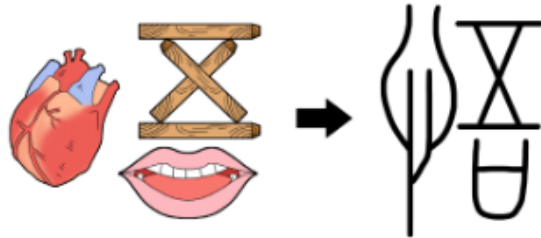
까마귀
오

烏자는 '까마귀'나 '탄식'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그러니 烏자에 쓰인 火(불 화)자는 불과 아무 관계가 없다. 烏자와 烏(새 조)자는 매우 비슷하게 그려져 있다. 다만 몸이 까만 까마귀는 눈동자가 잘 보이지 않기에 烏자의 눈부분에 획을 하나 생략한 烏자는 '까마귀'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까마귀는 우두머리가 없다. 그래서 오합지졸(烏合之卒)이라고 하면 질서가 없이 우왕좌왕하는 병졸들을 일컫는다.

금문	소전	해서

3(2)
-
302

회의문자①



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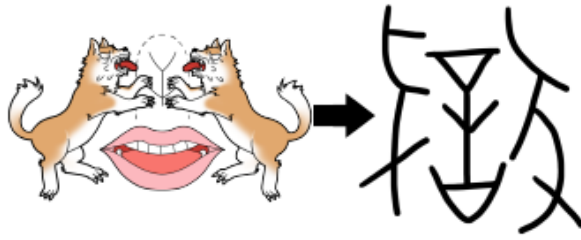
깨달음
오:

悟자는 '깨달다'나 '깨우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悟자는 心(마음 심)자와 忸(나 오)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忸자는 '나'라는 뜻이 있는 글자로 여기에 心자가 더해진 悟자는 '(내가)깨달다'나 '(내가)깨우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悟자가 말하는 것은 '깨달다'라는 것은 나 스스로가 마음 깊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서유기의 손오공(孫悟空)이란 이름에 悟자가 쓰인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소전	해서

3(2)
-
303

회의문자①



獄

옥[囚舎]
옥

獄자는 '감옥'이나 '송사', '판결'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獄자는 犬(개 견)자와 言(말씀 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獄자에는 두 마리의 개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그사이에는 言자가 있으니 마치 개 두 마리가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모습과도 같다. 사실 獄자는 자신이 옳다며 서로 다투는 모습을 개의 공격성에 비유해 만든 글자이다. 그래서 獄자의 본래 의미는 '시비를 논쟁하다'였다. 하지만 시비에 대한 판가름이 나면 누군가는 반드시 감옥에 가게 된다는 의미가 파생되면서 지금은 죄인을 가두는 '감옥'을 뜻하게 되었다.

獄

금문

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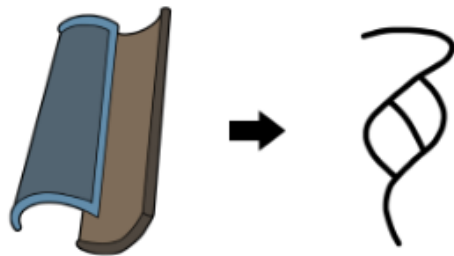
소전

獄

해서

3(2)
-
304

상형문자①



瓦

기와 와:

瓦자는 '기와'나 '질그릇'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瓦자는 기와가 서로 맞물려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기와의 역사는 3,000년 전 중국 주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춘추전국시대에 접어들어서야 전국 각지로 전파될 수 있었다. 그래서 瓦자는 갑골문이나 금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소전에서야 처음 등장한 글자이다. 기와는 흙을 빚어 고온에서 구워내야 하므로 토기를 제조하는 방식과 매우 비슷하다. 그래서인지 瓦자는 '기와'라는 뜻 외에도 '질그릇'과 관련된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상용한자에서는 瓦자가 부수로 쓰인 글자가 없지만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주로 '토기'와 관련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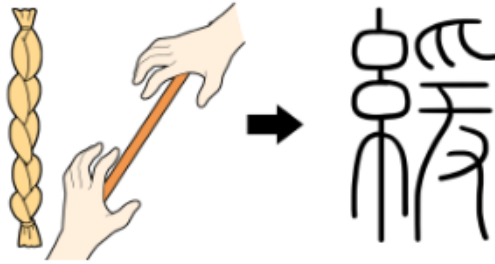
소전

瓦

해서

3(2)
-
305

회의문자 ①



緩

느릴 완:

緩자는 '느리다'나 '느슨하다', '늦추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緩자는 系(가는 실 사)자와 爰(이에 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爰자는 누군가에게 막대기나 줄을 건네주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緩자는 이렇게 줄을 건네주는 모습을 그린 爰자를 응용한 것으로 여기에 系자를 결합해 '(줄이)느슨하다'를 표현했다. 다만 지금의 緩자는 어떠한 상황이나 분위기가 부드럽게 누그러진다는 의미에서 '느슨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緩

소전

緩

해서

3(2)
-
306

회의문자 ①



慾

욕심 욕

慾자는 '욕심'이나 '욕정', '탐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慾자는 欲(하고자 할 욕)자에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欲자는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 마시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欲자가 '욕심'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欲자가 '~하고자 하다'나 '바라다'와 같은 '욕망'을 뜻하게 되면서 여기에 心(마음 심)자를 더한 慾자가 '욕심'이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쓰임에서는 慾자와 欲자를 잘 구분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慾자는 '욕심'을 欲자는 '바라다'라는 뜻으로 구분되어 있다.

慾

소전

慾

해서

3(2)
-
307

회의문자①



欲

하고자할
욕

欲자는 '~하고자 하다'나 '바라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欲자는 谷(골 곡)자와 欠(하품 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谷자는 물이 흐르는 계곡을 그린 것으로 '골짜기'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골짜기를 그린 谷자에 입을 벌린 欠자가 더해진 欲자는 마치 큰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 마시려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欲자는 본래 과할 정도의 의욕이라는 의미에서 '욕심'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하지만 후에 欲자가 '~하고자 하다'나 '바라다'와 같은 '욕망'을 뜻하게 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心(마음 심)자를 더한 慾(욕심 욕)자가 '욕심'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참고로 실제 쓰임에서는 欲자와 慾자를 크게 구분하지는 않는다.

欲

소전

欲

해서

3(2)
-
308

회의문자①



辱

욕될
욕

辱자는 '욕되다'나 '더럽히다', '모욕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辱자는 辰(별 진)자와 寸(마디 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辰자는 농기구의 일종을 그린 것이다. 여기에 사람의 손을 그린 寸자가 결합해 있으니 辱자는 밟아 짓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辱자의 갑골문을 보면 농기구를 손에 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농기구 주위로 점이 찍혀있다. 이것은 농기구로 풀을 베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辱자의 본래 의미는 '풀을 베다'나 '일을 한다'였다. 그러나 일이 고되다는 뜻이 확대되면서 후에 '욕되다'나 '더럽히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辱

갑골문

辱

금문

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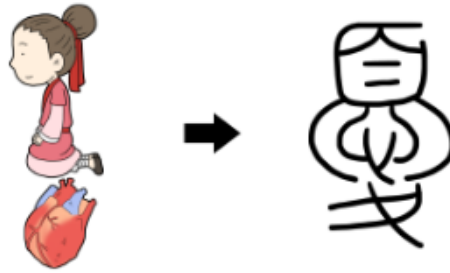
소전

辱

해서

3(2)
-
309

회의문자①



憂

근심 우

憂자는 '근심'이나 '걱정'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憂자는 頁(머리 혈)자와 冫(땀을 먹)자, 心(마음 심)자, 攴(을 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니 憂자는 사람의 머리부터 심장, 발까지 묘사된 글자라 할 수 있다. 그런데 憂자의 구조를 보면 머리와 발 사이에 心자가 있어 마치 큰 머리가 심장을 짓눌르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憂자는 '근심'을 뜻하기 위해 이렇게 심장이 압박받는 모습으로 그려진 글자이다.

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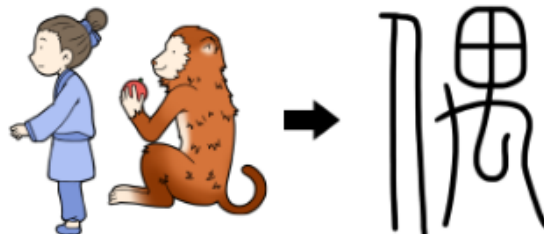
소전

憂

해서

3(2)
-
310

형성문자①



偶

짝 우:

偶자는 '짝'이나 '배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偶자는 사람의 배필을 뜻하기 위해 人(사람 인)자가 의미요소로 쓰였다. 禺(원숭이 우)자는 발음역할만 할 뿐 뜻은 전달하지 않는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偶자를 나무나 흙으로 빚은 조각상이라 풀이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배필을 뜻하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偶자에 '허수아비'라는 뜻이 있는 것을 보면 예전에는 사람의 모습을 본뜬 것을 偶라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偶자에서 말하는 '배필'이라는 것도 사실은 나와 닮은 반쪽을 뜻하려 했던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偶

소전

偶

해서